



투기목적 농지매매 농업법인 대거 적발

법인 12곳 8만여㎡ 농지 사고 되팔아 140억원 시세차익 농지 부정 매수 188명도 검거... 타지역 공무원 10명 포함

제주에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개인에 팔아넘긴 농업법인 1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농지를 되팔아 남긴 시세 차익만 총 140억원에 달하고, 농지를 구입한 이들 중엔 공무원들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 판 혐의(농지법 위반 혐의)로 농업법인 12곳과 이들 법인 관계자 17명 및 이들로부터 농지를 사들인 188명 등 총 205명을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농업법인 12

곳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 지역 농지 총 8만232㎡를 매입한 뒤 14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한 법인의 경우 안덕면 소재 2만 2632㎡의 농지를 20억5000여만원에 사들인 뒤 약 48억원에 되팔아 27억 5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농지를 되팔는 과정에서 매수자들에게 제주도 민으로 등록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취득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또다른 법인은 표선면 소재 2만 1725㎡ 규모의 농지를 21억6000여

만원에 사들인 뒤 76억6500여만원에 되팔아 55억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경찰은 또 이들 농업법인으로부터 농지 8만232㎡를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인 매수자 188명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해 지자체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농지법 상 농지는 직접 농업 을 하거나 주말·체험 영농을 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다. 또 농지를 매입한 이는 3개월 내에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도록 돼 있다.

이들 매수자들은 농지취득자격증 명서 등에 농사를 짓거나 주말·체험

영농을 운영하겠다고 작성했지만, 실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영농을 운영 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매수자 188명 중에는 서울·영남 지역 거주 공무원 10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 10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에 범죄 사실을 통보했다.

김영은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장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에 ‘시세차익금 환수 규정’을 신설할 것과 ‘농지 취득 시 사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는 법령 개선 건의 안’을 전달했다”며 “제주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화재 잇따라... 인명피해는 없어

지난 16일 제주에서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6분쯤 제주시 이도동 모 보일러 대리점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 사진

화재를 목격한 신고자가 대형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보일러 본체 4개가 소실되고 건물 외벽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당국 추산 약 74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48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한 박물관에서도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



물 내부가 부분 소실되는 등 소방당국 추산 약 128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산소절단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 10시34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한 자동차 정비소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난 뒤 10여분 만에 자체진화 됐다. 소방당국은 제동장치 불량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

50대 사전투표소서 행패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욕설 등 행패를 부린 모 정당 선거참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1일 오전 7시30분쯤 서귀포시 소재 읍사무소 사전투표소 옆 여직원휴게실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참관인을 못하겠다고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오후 4시쯤 사전투표소를 다시 찾아 욕설을 하며 자신이 들고 간 커피면 상자를 선거사무원에게 던졌다. 또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달려들어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문미숙기자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7일 제주시 조천읍 애국선열 추모탑 앞 광장에서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주최한 애국선열의날 및 제18회 제주시 애국선열 합동추모식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길 건너던 20대 차에 치어

17일 오전 1시8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한지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24)씨가 SUV에 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영준기자 yjhyeon@ihalla.com

“반려동물 둘 중 하나는 미등록”

지자체 일일이 확인 한계

반려견 등의 동물등록제가 2008년부터 자율시행을 거쳐 2013년부터 의무화됐지만 제주시 지역 등록률은 50% 안팎에 머물고 있다. 1인가구, 고령가구 증가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되는

동물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인력이 일일이 나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등록된 반려동물은 2만9400마리로, 추정 동물이 약 6만여마리를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등록등록이

저조하지만 미등록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7건에 500만원에 그친다. 산책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년동안 7건에 140만원이다.

한편 등록대상 동물을 미등록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변경신고를 않고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최대 50만원이 부과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주민센터·우체국 장애인 접근성 매우 열악”

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접근 가능 화장실 9.5% 그쳐

제주지역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 실태 관련 조사 결과, 휠체어 진입이 어렵거나 전용 주차구역에 적절한 안내 표지가 설치되지 않는 등 관리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올해 8월부터 한달간 진행한 ‘2020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우체국 등 총 84개소다. 조사 항목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거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출입의 용이성, 민원서비스·편의제공,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5곳에 대한 적합성 여부다.

조사 결과 84개소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39곳(46.5%)이었으며, 진·출입로의 경우 경사도의 기울기가 높아 휠체어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곳이 56곳(69.7%)에 달했다. 특히 민원서비스·편의제공 부문에선 단 4곳(5%)만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은 8곳(9.5%)에 불과했다.

우체국의 경우 점자안내책자가 비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시설 또한 84개소 중 22개소(26.1%)에 그쳤다.

인권포럼 관계자는 “시설의 부적절한 설치뿐만 아니라 고장 상태로 신속한 수리가 진행되지 못하였거나 비품을 쌓아놓는 등 관리 부주의로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이장이나 공급희망 농협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것이다. 올해는 42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6647농가에 4만700t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그랜드 보청기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행사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샵샵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총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총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직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심의번호 2018-GN1-11-0011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육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비출소 ● 국제보청기(국가보증)
한라체육관 ●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양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의원
제주대 ● 제주중양서시 ● 시청
제주대 ● 제주중앙여고 ●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양여고 입구 맞은편 중양신협 2층)

☎ 756-2833